

1. 돈의 가치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1,000원 샅이 주변에 많이들 생겨 들어가 보면 1,000원에

판매되는 물건들은 작은 소모품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쓸만한 물건은 좀더 돈을 보태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저 멀리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한 사람이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도 역시 1,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다섯 살 어린아이들도 세뱃돈을 천원 짜리로 주면 받지 않는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화폐가치가 낮아진 걸까요?만약에 우리가 1,000원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기부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이고,

더운 나라에서 하루 땀 흘려 일 하는 노동을 대신 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1,000원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는냐에 따라 가치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경제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관념이란..?

학교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잘 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혹은 그와 반대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에 상응 하는 상점이나 별점을 부여 하는 학교도 있고,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상이나 별을 주시기도 한다지요.

경제관념을 쉽게 알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흔한 ABC초콜릿으로 상을 주면서 하는 방법인데요.

하교 시간이 되면 최종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개수를 세게 해서 큰 초콜릿과 바꿔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미리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 해 주지 않아야 하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다 먹거나 몇 개 먹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 모으지 않아 큰 초콜릿으로 바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니 바로 경제 관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먹는 방법

또한 그 ABC초콜릿을 많이 모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선생님께서 큰 초콜릿으로 바꾸라고 한다고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관념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뿐.

이것은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모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될 테니까요.₩

2. 부모님의 급여와 나의 용돈과의 관계

요즘 학생들의 용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빠들은 한달 용돈을 얼마 정도 쓰는지 아십니까?

사실, 적절한 금액으로 라인은 그어 놓지 않으면 당연하다로 이어져 소비습관까지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교육의 필요성

경제교육은 주 1회 하는 것이 적당하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령 부모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그 중 내가 쓰는 돈은 얼마이며,

그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써야 할 권리가 아님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돈의 소중함을 알려 주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3. 꼭 써야 하는 돈 & 안 써도 되는 돈

영수증을 모아서 지출을 꼼꼼하게 적었다면

많이 지출된 항목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누계를 적습니다.

지출금액은 이 학생의 경우 월 용돈이

8만원이니 소비의 비율은 40%, 32,000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이미 7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보다 지출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1. 근검절약
2. 버티기 작전
3. 긴급 수혈 (주변 친지분들로부터)
4. 신용대출(친구들로부터)
5. 계획 있는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일까요?

선택의 자유

예전에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요즘 학생들은 콩쥐 팥쥐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착하기만 해도 바보라고 놀리는 시대라서요..

현대판 콩쥐는...

팔쥐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집안 굶은일 다 해놓고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하라고.

콩쥐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저, 안 갈 건데요” 라고.

기회는 스스로 선택 하는 것

지금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기회란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